

# 새누리당 친박계 내부 분화 조짐 '고개'

### 트레이드마크 결속력은 어디로... 당권·지도체계·복당 등 현안 이견 속출... 이탈 조짐까지도

새누리당 친박계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너무 배타적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했던 친박계가 최근 들어서는 내부의 이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직 균열이나 내분 등의 자중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이점에 비해서는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민감한 현안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기 정당대회의 당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난무한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좌장인 최경환 의원의 당대표 등극을 고대하고 있지만 같은 계파 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이주영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자칫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비박계가 단일 후보로 나서면 당권을 비박계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친박계 후보들은 '양보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현재 친박계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최 의원을 비롯, 이주영 원우철 홍문종 이정현 한선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중에서 이주영, 이정현 의원 등이 최 의원 단일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일지도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 친박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 한선교 의원은 "비박계에서 결정할 것을 의원총회에서 얻을 수는 없다"고 비박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비박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같은 친박계의 이완 조짐은 당내 가장 큰 파문을 불러왔던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비박계가 표결로 유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하자 친박계인 김태홍 당시 제1사무부



친찬반이면 미소가 활짝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태홍 정무수석을 칭찬하자 환한 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청와대를 질타하자 이들은 금세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총장은 "비박계 쿠데타"로 규정했으며, 김진태 의원은 의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반면 친박계 마형 서청원 의원은 "비박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고, 한선교 의원도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며 무소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우철 의원도 비박계 결정 번복이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친박 강경파들은 당초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다 사과로 수위를 낮췄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로 과격

비파야 했다. 또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김태홍 사무부총장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자, 김 부총장은 한동안 버텼지만 친박계의 조직적 방어는 없었다. 결국 김 부총장도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의 이탈 조짐도 눈에 띈다. 지난 22일 '김무성 대권 플랜 시작' 관측을 낳은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국회 연구모임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대거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놓고 친박과 비박도 아닌 '중박계'란 신조어도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조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최경환 의원의 공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강행, 탈박의 길을 걸었다. 당시 유 의원은 "나를 친박 후보라는 지칭을 하지 말아 달라"며 친박 후보 프리표를 떼겠다고 선언기도 했다.

이를 두고 총선 참패 이후 친박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집력이 강했던 친박계가 서서히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비정한 단면이기도 하다. /뉴시스

## 도선관위 백두성 상임위원 취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백두성 상임위원(1급)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백 상임위원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백두성 상임위원은 서울시선관위 지도1과장, 관리과장,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고민형 기자

## 더민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홍근)와 민주주의회복 TF(팀장 박법계), 그리고 더민주 소속 미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화 녹취록을 포함, 그간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을 낱알이 규명하기 위해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전 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의 보도제작과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현영 전 KBS사장이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들도 세세하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정권의 호위무사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다 대통령의 심기 보전과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로, 참여정부 시절 31위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노골적인 언론통제로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새누리 "세월호 특검, 필요 없다"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을 두고 "현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당이 세월호 관련 특검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는 그간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실제적 진실 규명에 있어 새로운 단서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검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어제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관련 소위가 결성됐는데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주체는 누구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3당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인양된 선체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 국민의당 손학규 러브콜 분위기 갈수록 확산

안철수·천정배 공백 해소 의도

국민의당이 1일 당 공식회의에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영입을 거론하는 등 손 전 고문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김수민 의원 관련 사건으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추락한 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손 전 고문을 활용하지는 의도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선 "국민들이 놀랄 정도의 당외인사가 외부인사 영입대상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이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을 표방해 손학규를 포함해 많은 외부인사 영입 노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 전 고문 영입에 관해 "안 전 대표도 기존에 계속 그런 입장이었고 박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손 전 고문을 포함한 외부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입 노력을 유지해 왔다. 이런 기조에는 변함 없다"고 밝혔다.

당내 주요 당직자들도 손 전 고문 영입 의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현수진의 SBS 전담대' 인터뷰에서 "기존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정치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데 (손 전 고문은) 에너지는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며 "안 전 대표도 좋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손 전 고문의 영입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

는 분위기"라며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선 안 전 대표 독주체제로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독주하면서 계속 그렇계만 국민들에게 비취려면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손 전 고문도 계시고 정운찬 전 총리도 계시고 정의화 전 의장님이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냐"며 "그런 분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야만 내년 대선에서 거대 새누리당·더민주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